

‘바이오필리아(효과)’가 공간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나이듦’의 윤리적 이해를 중심으로

이상훈 (한남대학교 연구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중고령자에 대한 공간의 왜곡과 공간의 가소성
 - 1. 중고령자들 공간의 왜곡
 - 2. 공간의 확장성과 가소성
 - 3. 나이의 가변성과 생활연령
- III. 바이오필리아(Biophilia)와 바이오필리아 효과(Biophilia Effect)
 - 1. 바이오필리아
 - 2. 바이오필리아 효과
- IV. 공간의 고령화 극복을 위한 나이듦의 윤리적 이해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12>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009).

• ABSTRACT •

‘Biophilia Effect’ on Aging Space: With Emphasis on the Ethical
Understanding of ‘Growing Old’

Research Professor Lee, Sang-Hoon(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contribution biophilia (effect) can make to preventing aging public space brought about by social and economic exclusion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and underestimation of their functional abilities. This paper first attempted to explore such concept as spatial limitation and expandability, age malleability, and chronological age, which are deemed as conditions to cause or reverse aging public space. Then I examined how biophilia (effect) can help effectively cope with aging public space and encourage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o stay active and productive. Above all, it was found that relationships spanning age groups play an important role in grappling with prejudice and stereotyping about age and promoting active and meaningful aging. This finding pointed to ethical aging supported and pursued by biophilia (effect) as opposed to aging in terms of chronological age.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biophilia (effect) can have a meaningful effect on preventing aging public space as biophilic individuals are inclined to actively engage in ethical aging.

Key words: Biophilia, Space, Aging, Working Age Population, Chronological Age, Ageism

I. 들어가는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초고령 사회로의 이행(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및 유럽 선진국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일 만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이 점차 고질화해 가고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의 가중 전망에 관한 논의의 발전과 대처가 보다 실효적이기 위해 주제의 확장과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¹⁾ 그런데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활동적인 삶에서 중고령자들의 자발적, 비자발적 퇴진을 동반하지만, (초)고령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풍부한 경력과 양질의 숙련이 바탕 된 중고령 인력의 계속적 유지와 활용 또는 재고용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²⁾ 우리는 초고령사회 논의의 발전과 지평 확장 및 과제 대처의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도와 관습 면에서 차별과 편견의 고령화 현상이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저지의 실효성과 중고령층의 활동성을 높이는 기제인 ‘공간’ 개념으로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가 흔히 빠지는 중고령인구의 배제나 평가절하는 공동의 삶에서 연령에 따른 공간별 배치와 그들의 기피로 이어지는 ‘공간의 고령화’를 초래해 가시적, 비가시적 차별과 편견이 그들의 활동과 역할에서 발생한다. 여러 모습으로 자아를 실현하려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일과 직업 등 다양한 활동에서 중고령자들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에 의한 그들

1) 김경수 외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국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2021. 12. 29), 72-77; 대한민국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12), 129-130;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 「보건복지포럼」, (2017), 50-66.

2) 이와 관련해, 경제학자 김태유는 나이별 분업에 기초한 중고령 인력의 생산적 활용을 제안한다. 그의 다음 책을 보라. 『은퇴가 없는 나라: 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211-227.

의 퇴거와 소외현상을 낳는다. 연령주의적 차별과 배제 및 과도한 ‘나이의 식’으로 인해 지속되는 ‘공간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유발할 뿐 아니라 중고령인구를 형식적 생산(64세 이하)·비생산(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실제적 비생산 연령층과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해 고착화를 가속시킨다. 이때 중고령자들은 대개 생활연령(출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상의 나이)과 “개인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투영”하는 “사회적 연령(sociological age)”에 근거해 존재와 역량이 판단된다.³⁾ 그 결과 획일적으로 정형화된 연령주의 문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퇴거와 소외가 일으키는 공간상 배타적이고 ‘차별적 집단화’는 중고령층을 공적 의미를 갖는 자기 이해에서 주변인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에게 개방된 공적(활동과 참여를 통한) 영역(직업과 사회적 활동 등)을 사적 공간으로 ‘사사화(私事化)시키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편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제안한 “생명과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정의되는 ‘바이오�필리아(biophilia)’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바람”으로, 따라서 우리는 현상 유지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고⁴⁾ 정해진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모험”적인 삶을 더 선호한다.⁵⁾ 이러한 의미의 바이오�필리아는 더욱 중요한 면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나이에 근거한 차별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적 영역과 활동에서 소외나 주변화시켜 연령이 진입장벽이 되는 공적 영역 혹은 공간의 왜곡 현상에 본질적으로 상충된다. 그리고 중고령자들의 계속적 활동과 성장의 기회를 차단하고 그들을 비참

3) Lynda Gratton and Andrew J. Scott, *The New Long Life*, 김원일 역, 『뉴 롱 라이프』(서울: 클, 2021), 77.

4) Erich Fromm,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3), 365.

5) Erich Fromm, *The Heart to Man*, 황문수 역, 『인간의 마음』(서울: 문예출판사, 1977), 73.

여적 은퇴자나 비활동적 생활로 제한해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공간의 왜곡은 바이오필리아의 관점과 궤를 달리한다. 위 사실은 교육·직업·퇴직의 “3단계의 삶”에서 벗어나 수명연장에 부합하는 “4, 5단계”의 ‘또 다른’ 삶을 준비해 사는 근거와 동기에 관한 한,⁶⁾ “자연과의 접촉”이 일으키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안”에 매우 “긍정적”으로⁷⁾ 작용하는 ‘바이오필리아 효과’(biophilia effect)로 그 적용과 의미가 확장될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간의 고령화를 저지하고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관점과 개념을 배태한 ‘바이오필리아(효과)’가 공간의 고령화에 대한 변화와 극복의 가능성 제시에 어떤 기여를 할지 살필 것이다. 먼저, 공간의 고령화와 관련해 공간의 확장성과 가소성 및 나이의 가변성(malleability)과 ‘생활연령’에 관한 조명과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어서 ‘바이오필리아(효과)’가 공간의 고령화를 저지하고 중고령자들이 지향하는 4, 5단계 삶에 요구되는 생산적이며 행복한 ‘나이들’을 추동하는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⁸⁾ 이러한 규명은 나아가 본질적으로 공간의 고령화에 취약하며 인과적인 생활연령 관점의 나이들(aging)에 대비되고 바이오필리아(효과)가 지향하고 지원하는 윤리적 ‘나이들’을 제시할 것이기에 이에 관해 고찰할 것이다.

6) Lynda Gratton and Andrew Scott, *The 100 Year Life*, 안세민 역, 『100세 인생』(서울: 클, 2017), 157-200.

7) Clemens Arvey, *Biophilia in der Stadt*, 박병화 역, 『필(必)환경도시』(서울: 울리시즈, 2020), 15.

8) 여기에는 “우정, 긍정적인 (가족) 관계”,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웰빙”, “가깝고도 긍정적인 친구들”, “새롭고도 다양한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Lynda Gratton and Andrew Scott, 『100세 인생』, 131-153).

II. 종교령자에 대한 공간의 왜곡과 공간의 가소성

인간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간을 필요로 하며 어떤 형태로든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⁹⁾ 또한 인간은 공간적 존재로서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펼치”기에 공간은 인간이 “구성”하고 “펼치는” 한에서 실재한다.¹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공간에 대한 관계”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으며 공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¹⁾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삶은 공간의 성격 즉 공간이 지향하는 것에 의해 정의되고 발현되지만, 우리가 사는 공간 역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의식에 따라 성격과 내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교대로 그 변화는 우리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형성하고 규정하는 한에서 공간의 내용과 문화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처럼 공간과 인간의 삶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서로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에 공간이 우리를 규정하고 구속하기도 하지만 공간은 제한된 우리의 사고와 의식을 열어젖히고 공간의 확장을 통해 공간 너머로 이끌고 나아가기도 한다.

1. 종교령자들 공간의 왜곡

그런데 공간의 사용과 점유에 관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상충하는 요구로 인해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의 호혜적 공존 대신 경쟁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은 언제나 잠재하고 나타날 수 있다. 주어진 공간이 한정된 것으로

9) Otto Fiedrich Bollnow, *Mensch und Raum*,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서울: 예코리브르, 2011), 22.

10) 위의 책, 23-24.

11) 위의 책, 23-24.

인식되고 분할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구성원 간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점유자와 소외자가 있게 된다. 사실 주어진 공간에서의 공존 혹은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은 공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한되었다고 보는) 공간의 인식 방법에 적지 않게 좌우된다. 공간이 제한적이기보다 공간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거나 공간을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주어진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공간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제한이 공간에 결부되는 것과 주어진 공간에 대한 배타적 점유의 배경에는 나이듦에 따라 중고령자들을 위한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한다. 고정관념화된 나이듦과 생산적 활동이 기대되는 공적 공간 간에는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공적 공간에 중고령자의 참여가 나이듦과 연동해 근본적으로 감소하고 제한되며 나이듦과 공적 공간이 부딪힌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공간의 고령화에 의한 배타성과 공간의 제한성은 한정된 공간과 기회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나이듦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초래되는 한계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나이듦이 유발한다고 여겨지는 역량, 동기 등의 약화와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에 대한 기피로 인한 중고령자의 배제와 소외를 반영하는 것이다.

공간의 고령화는 우선 나이듦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배제되는 인구집단이 실질적 고령층의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발생하고, 나아가 ‘생활연령’과 ‘사회적 연령’에 의존해 개인과 연령층을 규정하며 나이차별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고착화시켜, 공적 공간에 나이에 대한 왜곡과 편견이 지배함으로써 나이차별적 배제문화가 확대재생산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¹²⁾ 따라서 중고령자들의 ‘고령자’로서의 자기 이해와 ‘고령인구’로서의

12)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서울: IVP, 2012), 101, 114-120; Ashton Applewhite, *This Chair Rocks*, 이은진 역,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서울: 시공사, 2016), 29-62. ‘공간의 고령화’와 중고령인구의 비자발적 노동참여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표면적인 고용지표에 의존해 전자가 후자에 의해 완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관련해

공공(公共)의 나이 차별적 인식은 그들의 취업, 활동, 참여의 동기와 의지를 누그러뜨림으로써 고령 유희인구로 전락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의미 있는 삶과 활동의 공간으로부터 비활동적이고 비참여적인 사회적 영역으로 분리하고 퇴거시킨다. 이러한 분리와 퇴거는 노동력(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의 생산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유희 비경제활동인구¹³⁾가 늘어나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키는 이중적 부담을 낳게 된다. 그런데 이중적 부담으로 귀착되는 공간 왜곡을 초래할 중고령자들의 분리와 퇴거는 공간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분석되는 제한된 공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요구한다.

제한된 공간은 흔히 기회와 획득의 제한으로 간주되기에 한정된 자원으로로서의 공간에 대한 점유와 기존 점유의 유지 및 확대는 종종 타인들과의 갈등과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많은 경우 삶의 공간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공간 이해는 타자에 대한 이해로 나아간다. 공간의 고령화에서처럼 공간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나이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따라 타자들을 배타시키고 차별하는 행위가 동반되며 그들에 대한 기피나 반감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¹⁴⁾ 이러한 관점 뒤에는 공간뿐 아니라 공간 인식과 공간 활동도 한정되고 경직돼 있으며 제한적이기에 넓어지거나 변화되기 어렵다는 논리가 자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이해와는 구별되는 “다른 가능성”으로서 사유 대신 공유가, 구속 대신 자유가 실현되고, 함께 존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는 심층적이고 확장적인 호혜적 논리의 “공간성”도 있을 수 있다.¹⁵⁾

비자발적 노동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공간의 고령화’를 관련짓지 않을 때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3)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총인구 중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말한다.

14) Bollnow, 『인간과 공간』, 332-333.

2. 공간의 확장성과 가소성

공간은 경직되고 제한된 곳으로 인식될 때 흔히 구성원들 간 갈등과 타자의 배제를 동반한다. 공적 공간이 경쟁과 다툼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지만 외려 새로운 창조와 확장성이 일어나는 공동의 공간을 형성할 수 없을까? 사실 공간은 고착된 제한성만 있지 않고 열린 확장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인식방식과 활용 형태에 따라 경직성 대신 가소성이 발현될 수 있다. 공간을 제한된 영역으로 인식해 타자를 몰아내고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쟁” 대신 어떻게 존재하고 활동할 것인가에 따라 확장성이 있는 열린 곳으로 조성되는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이 다른 가능성은 “경계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하나의 공동 공간”¹⁷⁾을 평화로이 공급하고 제공하는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 시인 릴케(Rainer Maria Rilke)의 표현에 따르면 “서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서로에게 공간과 넓은 곳과 자유를 허락”¹⁸⁾하는 형국이다. 여기에서는 루트비히 빈스방거(Ludwig Binswanger)가 말하는 것처럼 공적 영역에서 타자를 몰아내고 몰아낸 사람이 내몰린 사람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있는 공간이 “(나를 위한) 장소가 ‘탄생하는’” 상황이 전개된다.¹⁹⁾ 같은 공간을 타자와 공유함으로써 타자는 고착돼 제한될 수 있는 공간에서 나를 위한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기에 타자와 공유

15) 위의 책, 333-334.

16) 위의 책, 333.

17) L. Binswanger, *Grundformen und Erkenntnis Menschlichen Daseins*(Zürich: Max Niehans, 1942), 26. 위의 책, 334에서 재인용.

18) R. M. Rilke, *Briefe aus den Jahren 1907-1939*, 84. Bollnow, 『인간과 공간』, 334에서 재인용; Paul Lehmann,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34-37.

19) L. Binswanger, *Grundformen und Erkenntnis Menschlichen Daseins*, 31. Bollnow, 『인간과 공간』, 335에서 재인용.

하는 한정된 공간은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원리 속에서는 타자에게 나의 “지위”를 양보하고 내 “공간”을 상실하기보다 “나의 공간을 포기함으로써 내 공간이 ‘무한히 증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²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공간은 인간과의 특정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태어나며, 인간의 사유와 실천은 공간에 원리와 형식을 부여하고 공간의 내용과 성격이 인간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공간의 경직성과 제한성을 인정하기보다, 본질상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공간의 확장성과 가소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시각은 갈등과 배제를 유발하는 한정된 공간 이해의 근거로서 중고령자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나이듦이 동반한다고 단정하는 한계성과 대조적으로 “공간 밖의 다른 공간”을 말한다.²¹⁾ 다른 이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하기를 선호하는 공간을 비껴가기에,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제한된 공간을 놓고 그들과 갈등하거나 경쟁해 “빼앗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자신들만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공간은 다른 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²²⁾ 확장성과 가소성을 본질로 하는 공간의 메커니즘은 중고령자들이 참여하는 공유 공간과 공간의 고령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의 고령화에서 행해지는 연령에 의한 사람의 배제가 아닌 공간의 확장을 추구하는 태도로 후자의 시행은 전자의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저지하게 된다.

이러한 확장 지향적인 관점에서 공간은 타자에 대한 존중과 가소성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상대에 대한 배타와 경쟁으로서의 공간은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착되고 축소되는 경향

20) L. Binswanger, 위의 책, 31. Bollnow, 335에서 재인용.

21) Bollnow, 『인간과 공간』, 338.

22) 위의 책, 339.

이 있다. 그런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평화롭고 바람직하게 작동하는 곳에서는 한 사람의 성취(공간 확장)가 다른 사람의 성취(공간 확장)로 이어지고 나이들의 과정 속에서 서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한다.²³⁾ 이러한 공동체는 갈등과 경쟁의 현상으로서 기존의 공간적 범위와 역량을 넘어서 공간의 변화와 확장 가능성으로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한다.²⁴⁾ 축소되는 공간을 놓고 경쟁과 배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확장을 위한 노력과 시도 속에서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진정한 협력이 일어나는 공동체이다. 이 안에서는 한쪽의 “성공”이 다른 쪽의 “피해”로 나타나지 않고 “공동의 성공”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고 혜택을 누리는 구조이다.²⁵⁾ 이러한 이해는 공간이 구성원의 의식과 성격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고 태어나기에 고착되거나 축소적이기보다 확장적 인식으로 공간의 가소성을 높인다. 왜냐하면 공간의 확장과 축소를 양적인 의미에서 좁아지고 넓어지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 가능하고 확장 지향적 이해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으로부터 중고령자들의 배제나 차별은 공간의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반면, 그들의 환대와 수용을 통한 세대 간 혹은 초세대적(transgenerational) 공동체와 공동체 형성 노력은 공적 공간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을 위한 미래의 삶의 공간을 앞서 창조하고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특징짓는 “네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나를 위한) 장소가 탄생한다”²⁶⁾는 공간 창조의 의미는 중고

23) 위의 책, 346.

24) 위의 책, 347. 안용성, “하이테크의 ‘세계’에 비추어 보는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성서 서사 공간 해석을 위한 이론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2014), 10-27; 안용성, 『현상학과 서사 공간』(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15.

25) 위의 책, 347;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서울: IVP, 2014), 107-110;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104-109.

26) L. Binswanger, 위의 책, 31. Bollnow, 335에서 재인용.

령자들이 현재의 공적 공간에서 수용되고 인정받으며 자신들의 일과 역할(자리)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 만듦이 일어나고 마침내 모두에게 새로운 자리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과정과 상호작용은 모든 개인과 세대가 공히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나이듦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공간에 대한 경직된 인식과 경쟁에 따른 배제 및 그로 말미암는 공간의 고령화를 실효성 있게 저지하는 것은 창조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초청과 서로의 변형을 이끌기 위한 협력이다.

3. 나이의 가변성과 생활연령

이러한 공간의 확장성과 가소성은 생활연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나이의 가변성을 전제하고 확산한다. 공간의 고령화는 대체로 경제적 가치의 강조와 이에 부응하는 관점 위주의 인간 이해에 따른 결과이기에, 그에 대한 저지는 경제외적 시각에서의 인간 이해에 관한 논의를 요청한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생명과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지닌 바이오필리아적 존재이다.²⁷⁾ 바이오필리아는 “성장이 더욱 이루어지게 하려는 바람”을 갖기에 우리로 하여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보다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것을 선택하게 한다.²⁸⁾ 공간의 고령화가 드러내는 관점과 실천에 반하여, 바이오필리아는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잠재된 삶과 변화에 궁금해하며 제한된 공간의 지분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발견할 길 좋아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모험”적인 삶에 이끌리는 것이 바이오필리아의 특징이고 영향이기 때문이다.²⁹⁾

27) Erich Fromm,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365.

28) 위의 책, 365.

바이오필리아적 존재는 이처럼 생명을 사랑하기에 호기심을 유지하고 계속해 성장하며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인정과 세대 간 존중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게 한다. 바이오필리아적일 때 우리는 현상 유지 지향적 공간 인식으로 경쟁과 갈등에 예속되는 대신, 확장 지향적으로 상호 협력과 수용의 관점에서 공적 공간의 가소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중고령자들은 공간의 고령화로 상실된 공간의 회복과, 확장되고 창조된 새로운 공간을 통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중고령기 혹은 4, 5단계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수’와 수명연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늙은 상태로 지내는 것”을 의미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젊음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전 생애 기간 “유회성”, “즉흥성”, “가소성”, “유연성” 등 “젊음과 관련된 특징”을 유지하는 것과 호응한다.³⁰⁾

그런데 공간의 고령화가 야기되는 이유 중에는 나이(생활연령)와 삶의 단계를 일치시키려는 과거 패러다임적 3단계 삶의 문화와 의식이 지배하는 것도 있다. 수명연장으로 나이가 더 적게 드는 “연령 인플레이션(age inflation)”에 따라 조율된 ‘지금’ 나이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거’ 삶의 단계를 일치하지 않고 점점 더 무관해지는 현상 때문에, 생활연령에 의존해 나이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특정 연령대의 인구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중고령자와 나이들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에 수명연장과 연동된 나이에 대한 이해로 연령 측정 기준의 상향 조정이 요구되기에 생활연령에 따른 이해와 기준 대신 “나이의 가변성(malleability)”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여야 한다.³¹⁾ 나이가 진입장벽이 되지 않고 “생애주기의 유연화”³²⁾가 정착되어야 하며, 삶의 조건들이 획일

29) Fromm, 『인간의 마음』, 73.

30) Lynda Gratton and Andrew Scott, *The 100 Year Life*, 안세민 역, 『100세 인생』(서울: 클, 2017), 25, 207-212.

31) 위의 책, 266.

적으로 출생 후 햇수에 얽매이는 “수치결정론(numerical determinism)”에 맞서 수명연장에 따라 늘어난 삶에 합당하고 효율적인 나이 인식이 필요 하다.³³⁾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달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이들의 ‘방식’”이 바뀌고 있으며 “생물학적으로 더 나은 고령화”가 진행된다.³⁴⁾ 나이들은 획일적이지 않고 “개 개인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생활연령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각자의 건강과 행동 양식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³⁵⁾ 우리는 개인의 주관과 행동 양식에 의해 좌우되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다른 ‘나이들’을 예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 수명연장 시대에 생활연령에 의존한 나이 결정론은 효율성과 설득력을 잃는 데 반해 이러한 “나이들의 다양성”은 점차 뚜렷해질 것이다.³⁶⁾ 다양한 나이들에 대한 이해는 획일적인 생활연령의 허점과 함정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듯 나이의 개인화를 통해 차별적 나이 관념으로 개인을 구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도이다.

둘째, 나이들에 대한 “주관적 느낌” 또한 나이의 가변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³⁷⁾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

32) 정경희 외 4인, “연령통합 지표개발과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12. 31), 25, 28. 여기서 “생애주기의 유연화”란 “교육, 노동, 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정경희, 오영희, “노인의 교육수준 변화 및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00.2], 57).

33) Lynda Gratton and Andrew J. Scott, *The New Long Life*, 김원일 역, 『뉴 롱 라이프』 (서울: 클, 2021), 72.

34) 위의 책, 74.

35) 위의 책, 74, 76.

36) 위의 책, 77.

37) B. R. Levy, et al., “Longevity Increased by Posi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3, no. 2, (2002), 261-270. 위의 책, 76에서 재인용.

효과”는 나이듦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나이 드는 삶의 질을 적잖이 좌우한다는 사실에 적용될 수 있다. 나이듦이 신체·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실제로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 밝혀졌다. 데이비드 롭슨(David Robson)에 따르면 나이듦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 및 ‘장수’와 상관성이 있으며 비관적 시각은 “부정적인 나이듦”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후속 연구들은 사람들의 기대와 신체적 노화 사이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³⁸⁾ 셋째, 이러한 현상은 나이듦에 대한 문화와 정서를 담아내는 사회적 관념이 어떠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중고령자들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으려 하고, 나이듦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그들에 대한 “공경 문화”가 뿌리내린 연령통합적 사회는 나이 드는 삶의 질과 장수의 비율을 높인다.³⁹⁾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기에 “사회가 개인을 바라보는’ 척도”이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투영”하는 사회적 연령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⁴⁰⁾

이러한 맥락에서 수명연장 시대에는 “나이를 가변적”으로 바라보며 출생 후 햇수에 얽매이는 “수치결정론”과 생활연령에 따른 3단계 삶과 나이 이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생활연령 1년 동안 나이가 더 적게 드는 것”을 뜻하는 “연령 인플레이션(age inflation)”에 대한 고려와⁴¹⁾ 나이듦의 과정에 대한 행동과 선택에서 자신과 타인의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나이 불가지론(age agonistic)”의 실천이 요구된다.⁴²⁾ 나이의

38) David Robson, *The Expectation Effect*, 이한나 역, 『기대의 발견』(서울: 까치, 2023), 323.

39) 위의 책, 345-347.

40) Gratton and Scott, 『뉴 롱 라이프』, 77.

41) 위의 책, 74-75.

42) 위의 책, 79.

가변성과 생활연령에 대한 상기 논의의 관점과 그 관점에 기초한 ‘공간’을 특징짓는 저변에 흐르는 지배 원리는 무엇인가?

III. 바이오필리아(Biophilia)와 바이오필리아 효과(Biophilia Effect)

공간의 고령화를 저지하고 회복하는 공간의 확장성과 가소성은 생활연령에 얽매이는 관점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나이의 가변성을 전제하고 촉진한다. 그렇다면 공간의 확장성과 가소성을 가능하게 하고 생활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사유와 생활방식을 근거 지우며 나이의 가변성을 특징짓는 지배 원리와 그에 따른 상황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그것을 ‘바이오필리아’와 ‘바이오필리아 효과’에서 찾고자 한다.

1. 바이오필리아

‘생명에 대한 사랑’⁴³⁾을 의미하는 ‘바이오필리아’는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제안하였다. 프롬은 ‘바이오필리아’를 “생명과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해하고, “식물이나 사상이나 혹은 사회단체든 그 모든 것의 성장이 더욱 이루어지게 하려는 바람”이라고 정의하였다.⁴⁴⁾ 그는 이러한 열정과 성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보다 “새로운 것을 구축”하고 “모든 것에 궁금”해하며 기존의 것

43) 바이오필리아는 ‘삶에 대한 사랑’으로도 번역된다. 예를 들어 Erich Fromm, *The Heart to Man*, 황문수 역, 『인간의 마음』(서울: 문예출판사, 1977)를 보라. 본 논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생명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사랑’으로 교호적으로 번역될 것이다.

44) Erich Fromm,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365; Stephen R. Kellert, *Kinship to Mastery: Biophilia in Human Evolution and Development*(Washington, D.C.: Island Press, 1997), 1-3.

을 “승인”하는 대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확실”한 것보다 “모험”적인 삶을 좋아한다⁴⁵⁾고 주장했다. 바이오필리아의 존재는 삶을 사랑하기에 “생명을 유지”하려 할 뿐 아니라, “통합하고 합일”하는 경향을 지니며 “이질적이고 반대되는 존재와 융합”하려 하므로, 배제와 차별이 아닌 “합일과 통합된 성장”이 “감정과 사고(思考)”를 포함한 “모든 생명 과정의 특징”이다.⁴⁶⁾ 이에 따르면 연령이나 세대 간의 통합과 합일이 삶에 대한 사랑 곧 바이오필리아의 방향성이며 나아가 바이오필리아의 관점에서 청년, 중년, 노년 각 세대는 성장을 향한 통합과 합일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바이오필리아의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삶과 성장의 과정에 매혹”되고 “생산적” 모습을 보인다.⁴⁷⁾ 여기서 생산이란 인간 각자가 자신만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항상 “실질적인 결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이며 “세상과 자신을 향해 갖는 대응과 성향”이지 관건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다.⁴⁸⁾ 따라서 바이오필리아의 관점에서 “선”은 “삶을 존중하는 것”으로 삶을 고양하고 성장을 북돋우는 모든 것이기에 삶을 “질식”시키고 제한하며 “조각나게” 만드는 것(연령차별과 공간의 고령화 등)은 이에 반하는 것이다.⁴⁹⁾

한편 프롬에 따르면, 바이오필리아의 발달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는 앞에서 언급된 “호기심을 자극하는 삶” 외에 타인과 상호 고무적인 영향을 받고 주는 것 즉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다.⁵⁰⁾

45) Fromm,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365.

46) Erich Fromm, *The Heart to Man*, 황문수 역, 『인간의 마음』(서울: 문예출판사, 1977), 71.

47) 위의 책, 73.

48) Erich Fromm, *Man for Himself*, 강주현 역, 『자기를 위한 인간』(서울: 나무생각, 2018), 135-136.

49) Erich Fromm, 『인간의 마음』, 74.

50) 위의 책, 82.

이러한 삶의 조건은 지루하고 “자극 없는” 삶이나 “기계적”이고 틀에 박힌 삶이 아닌, 어떤 것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게 하며, “흥미”를 느끼게 하는 삶으로,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특징을 지닌다.⁵¹⁾ 바이오필리아의 이러한 특징은 경직되고 확장성 없는 공간 이해와 타자에 대한 차별 및 배제에 기초한 공간의 고령화와 중고령층의 퇴거 대신, 세대 간 상호 존중, 공존, 상승을 위한 조화와 협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또한 바이오필리아의 발달은 품위 있는 삶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위협받지 않는” 경제적 안정과 타인을 “풍요롭고 품위 있는 삶을 펼치지 못하도록” 막는 부정을 없애는 정의가 필요하다.⁵²⁾ 그런데 더욱 중요한 조건은 “개개인의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장려 받을” 때 삶(생명)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촉진되기에 바이오필리아는 “~하는’ 자유, 곧 창조”하고 고안하고 호기심을 갖고 “모험하는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⁵³⁾ 이러한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활연령’과 ‘사회적 연령’에 따라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고정관념대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는 “자동인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중고령자들 “각자가 사회의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 그렇게 살도록 요구한다.⁵⁴⁾ 위와 같이 바이오필리아를 발달시키는 사회적 조건들은 공간의 고령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뿐 아니라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나이듦과 4, 5단계 삶 등에 관해 방향성과 시사점을 준다.

바이오필리아는 그래서 창의적인 삶과 행동으로도 드러난다. 여기서 프롬이 말하는 창의성은 “창의적 자세”⁵⁵⁾를 말하며 창의적 자세의 전제

51) 위의 책, 82.

52) 위의 책, 83-84.

53) 위의 책, 84.

54) 위의 책, 84.

55) Erich Fromm, *Lieben wir das Leben noch?*, 장혜경 역,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경기, 파주: 김영사, 2022), 126.

조건은 첫째, “대개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을 “문제”시 하고 그것에 “놀라며” “감탄하는 능력”으로 이것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서 갈 길”을 찾으며 “항상 새로운 사물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⁵⁶⁾ 창의적 자세의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사람은 각자 “온갖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동일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 각자의 “차이를 개발할 권리”를 자유로이 실천하는 데 있다.⁵⁷⁾ 또 다른 창의성의 전제 조건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런 의미의 ‘창의적’이라는 것은 “인생의 전 과정을 출생”으로 생각하며 삶의 “어떤 단계도 최종 단계”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⁵⁸⁾ 여기에 내재된 시각은 인간은 중고령기에도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이전 상태”의 “안전”을 떠나서 자기의 역량을 “더 자유롭게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상태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⁵⁹⁾

따라서 바이오필리아는 생애 전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본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측면은 현대인들에게 “인성 발달”과 인격적 “성장”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사물의 생산”이라는 “자기 바깥의” “전능한 목표” 하나가 우선시되고 있는 사실과 대조를 보인다.⁶⁰⁾ 바이오필리아의 관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고 성장하며 발전하고, 더 자각하며 깨어나는 과정”을 “기계적 실행이나 성과”의 어떤 형태보다 훨씬 강조하게 된다.⁶¹⁾ 바이오필리아는 이렇게 (초)고령사회가 공간의 고령화를 통해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왜곡된 인간 이해와 비인간화 메커니즘의 모순을 노정하는 동시에 수명연장 시대에 요구되는

56) 위의 책, 133-134.

57) 위의 책, 141.

58) 위의 책, 141-142.

59) 위의 책, 142.

60) 위의 책, 55.

61) 위의 책, 40.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안내하는 가치를 담지하고 실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우리가 내면의 바이오필리아를 회복하고 복돋을 때 공간의 고령화 대처와 (초)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에 필요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현상은 “자연과 접촉을 유지하는 동안” 전형적으로 일어난다.⁶²⁾ 이런 현상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안에 지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자연 체험”을 뜻하는 “바이오필리아 효과”로 정의된다.⁶³⁾ 바이오필리아 효과는 인간에게 자연의 회복력을 통해 “평정심, 인지적 명료성, 공감,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특질이 있음을 가리킨다.⁶⁴⁾ 그렇다면 바이오필리아 효과와 공간의 고령화를 저지하는 것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2. 바이오필리아 효과

공간의 고령화를 저지하기 위한 바이오필리아 효과는 무엇이며 어떤 면에서 중고령자들의 4, 5단계의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추구에 기여할 수 있는가? 우선, 바이오필리아 효과는 중고령자의 나이들에도 수명연장 시대에 요구되는 4, 5단계 삶을 위한 심리적, 정신적 회복과 재생으로 나타난다. 자연과의 접촉은 “안정과 재생”을 부르는 효과를 일으키며 “정신적 에너지”의 회복과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⁶⁵⁾ 또한 녹지예의 노출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많은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62) Clemens G. Arvay, 『필(必)환경도시』, 15.

63) 위의 책, 14.

64) Florence Williams, *The Nature Fix*, 문희경 역, 『자연이 마음을 살린다』(서울: 더퀘스트, 2018), 40.

65) Arvay, 『필(必)환경도시』, 148-149.

관찰되었다.⁶⁶⁾ 나아가 자연환경을 보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진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⁶⁷⁾ 실제로 “자연 자극”은 많은 “심리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정서적 이해와 감정 발생”을 담당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불안과 신경과민을 일으키는 “사회적 기관(Sozialorgan)” 즉 편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⁶⁸⁾

달리 말해, 신경심리학적으로 유의미한 자연의 효과는 “홍분신경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휴식과 재생의 신경이라고 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⁶⁹⁾ 자연을 보고 들음으로 “인지”할 때 나타나는 이 “안정과 재생”의 효과는 “만성 스트레스 장애”를 완화하고 “긴장”에서 벗어나 “안정”을 회복하게 해 “세포나 기관의 재생”을 일으키고 “소화 기능”을 정상화하며 “혈중 스트레스호르몬 수치”를 낮춘다.⁷⁰⁾ 수목(樹木)은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테르펜을 발산하여 “면역체계를 거기서 쓰이는 항암 무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도심에서 나무의 증가는 “심혈관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줄이고 뇌졸중 위험성을 크게 낮추며 도시 “주민의 기대수명”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⁷¹⁾ 이러한 결과를 설득력 있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도시 녹화가 가져오는 바이오필리아 효과가 건강을 위한 외부 활동과 신체 움직임(근력과 유산소 운동 등)을 위한 동기 부여가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이다.⁷²⁾

게다가 바이오필리아 효과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

66) 위의 책, 135-136.

67) 위의 책, 138.

68) 위의 책, 150-151.

69) 위의 책, 148; Michel Le Van Quyen, *Cerveau et Nature*, 김수영 역,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울: 프런티페이지, 2022), 41.

70) Arvay, 『필(必)환경도시』, 148.

71) 위의 책, 81, 199-200.

72) 위의 책, 203.

어, 경쟁, 갈등, 난관 등 일상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긍정적이며 “좀 더 희망찬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도록 영감”을 줄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느끼게 돕기도 한다.⁷³⁾ 공간의 고령화가 사회적 갈등의 표현으로 진단된다면, ‘바이오펠리아 효과’는 우리에게 “다른 눈”으로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게 해 “사회적 갈등”에 상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해준다.⁷⁴⁾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자연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공간”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⁷⁵⁾ 자연 속에 내재된 다양성은 그것에 노출되는 사람의 의식에 내재된 다양성에 대한 친화력을 회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령 도시 녹지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소로 “의도적으로” 꾸며질 수 있으며 도시의 공동정원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타자를 “수용”하고 “편견”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확산할 수 있다.⁷⁶⁾ 도시 공동원예로 예시되는 자연과의 접촉이 유발하는 “적극적 상호존중”과 타인과의 협동을 통한 “사회통합” 및 그룹 간 “존중을 훈련하는 공간” 제공은 세대 간 접촉과 소통의 노력과 장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⁷⁷⁾ 이러한 연결성과 공동체를 촉진하는 자연 공간에의 참여와 노출 과정에서 세대 간 소통을 진작시킬 수 있는 조건 마련은 공간의 고령화 저지에 긴요한 수단과 계기가 될 것이다.

상기한 바이오펠리아(효과)는 공간의 고령화 저지에 기여하는 중고령자들의 4, 5단계의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추구에 요구되는 ‘윤리적 나이듦’이 무엇이며 어떠한지 말해준다. 그런데도 공간의 고령화

73) 위의 책, 124-125.

74) 위의 책, 127.

75) 위의 책, 304.

76) 위의 책, 299, 301.

77) 위의 책, 302.

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항으로서 윤리적 나이들의 본질과 특성은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연령대 간의 인간관계가 “나이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실효성 있게 누그러뜨리는⁷⁸⁾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평가는 “생명과 성장을 가져다주는 자연의 과정”이 우리의 생활과 내면에서 “삶에 긍정적인” “바이오필리아의 힘을 활성화”한다는 입증된 사실을 반영하는 이 연구의 논지에 본질적으로 일치한다.⁷⁹⁾

IV. 공간의 고령화 극복을 위한 나이들의 윤리적 이해

지금까지의 논의에는 고령화 및 초고령사회와 관련 있는 나이들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암시돼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직업-퇴직의 3단계 삶에 기반한 생활연령 위주의 사회적 나이들과 이와 대조적으로 수명연장 시대에 “변화를 위한 재교육”과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는 등 제2 인생으로 4, 5단계 삶을 지향하는 나이들의 윤리적 이해이다.⁸⁰⁾ 삶의 전제 조건들이 출생 후 햇수에 얽매이는 수치결정론에 의존해 수명연장 시대에도 편견과 고정관념에 얽매여 삶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나이들의 이해와 대조적으로, 나이들의 윤리적 이해는 나이 드는 과정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나이의 가변성을 고려하고 1년 동안 나이가 더 적게 드는 연령 인플레이션과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나이 불가지론(age agonistic)”의 관점에서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나이들에 집중하는 접근이다.⁸¹⁾

78) Gratton and Scott, 『100세 인생』, 324.

79) Arvay, 『필(必)환경도시』, 124.

80) 이상훈, “중고령자들의 시간 이해가 ‘활동적 노화’ (Active Aging)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사회윤리』 53(2022), 390.

81) Gratton and Scott, 『뉴 롱 라이프』, 79.

나이들의 윤리적 이해는 앞에서 소개된 바이오필리아(효과)가 지향하고 형성하는 삶의 방식이며 이러한 나이들의 방식은 공간의 고령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윤리적 나이들의 한 측면으로서 바이오필리아(효과)에서 발견되고 “가깝고도 긍정적인 친구들의 네트워크”로 설명되는 ‘우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수명연장과 길어진 생애에 관한 연구는 중고령자들의 4, 5단계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웰빙”이 제시되고 늘어난 삶을 ‘잘’ 살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우정이 중요하게 포함된다.⁸²⁾ 특히 나이들은 안정적인 유대 관계의 점진적 약화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와 가까운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었다.⁸³⁾ 리디아 덴워스(Lydia Denworth)는 『우정의 과학』에서 “사회적으로 잘 통합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연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유지에서 훨씬 유리하며 친구 간 우정과 네트워크는 “성공”과 “번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방대한 자료와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지적했다.⁸⁴⁾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참여하고 모든 세대의 번성이 약속되는 공적 공간의 고령화를 저지하는 윤리적 나이들에 우정이 요구되고 긴요한 관계의 형태인 것이 명확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관계 윤리로서의 우정은 동일 연령대 내에서의 우정보다 서로 다른 연령대 간의 우정으로, 상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의 안정적인 관계에 큰 효과를 보인다. 4, 5단계 삶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과 관련해 린다 그래튼과 앤드루 스콧은 젊은이들과 중고령자들 간 상호 지원과 공유가 서로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⁵⁾

82) Lynda Gratton and Andrew Scott, 『100세 인생』, 136-137.

83) Lydia Denworth, *Friendship*, 안기순 역, 『우정의 과학』(서울: 흐름출판, 2021), 375.

84) 위의 책, 11, 21, 400.

85) Gratton and Scott, 『100세 인생』, 323-325.

다양한 나이대에 걸친 우정이 실천되는 세대 간 사회적 상호작용은 참여하는 여러 세대 개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웰빙 및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⁶⁾ 그런데 삶의 단계가 나이를 말해주는 3단계 삶에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4, 5단계 삶으로의 이행은 공적 영역에서 중고령자들이 배제되는 공간의 고령화를 저지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에 따른 연령차별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상이한 연령 “집단 간의 접촉”의 조건에서 적절히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⁸⁷⁾ 세대를 초월한 만남은 다른 연령대지만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이 우정을 형성하기에 중고령자들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돼 “별개의 국민”이 되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⁸⁸⁾ 이런 의미에서 세대 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우정을 위한 공간 마련으로, 다양한 연령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교류와 공유가 중고령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줄이는 것은 공간의 고령화에 대처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깝고도 긍정적인 친구들의 네트워크”로서의 우정 개념은 나이(늙)가 관계의 소원과 감소를 포함하는 활동적인 삶의 걸림돌이라는 편견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중고령기를 성장과 활동이 축소되거나 멈추는 것으로 가정하는 고정관념에 맞서는 것에 연동돼 있다. 나이듦을 이유로 성장과 활동이 중단되거나 만류 되어서는 안 되기에 중고령자들을 배제하거나 퇴거시키는 공간의 고령화는 공유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바이오필리아(효과)에 의해 본질적이고 실천적으로 반대되고 저지된다. 스탠리 하우어워스와 로라 요디(Loura Yordy)가 윤리적 관점

86) Denworth, 『우정의 과학』, 382.

87) Gratton and Scott, 『100세 인생』, 326.

88) 위의 책, 326; Becca Levy, *Breaking the Age Code*, 김효정 역, 『나이가 든다는 착각』 (서울: 한빛비즈, 2023), 252-255.

에서 세대를 초월한 우정을 쌓을 것을 제안하며 인간 됨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젊은 세대가 중고령 세대와의 교류와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⁸⁹⁾ 우정이 나이를 뛰어넘어 맺어질 때 (초)고령사회와 공간의 고령화에 직면한 공동체는 모든 세대의 행복과 번성을 위한 씨를 뿌리게 된다. 윤리의 성격을 지닌 세대 간 우정은 역할과 활동과 관련해 중고령자들을 수용하고 배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이들이 “무관심과 무책임감과 절망에 빠지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상기시켜 줄 수 있다.⁹⁰⁾ 다양한 연령에 걸친 윤리적 상호작용은 단순히 서로 유익하고 기쁨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나이들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기에,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살도록 추동하고 격려하는 상호 교류이며, 본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세대 간에 서로를 세워 주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⁹¹⁾

이런 의미에서 윤리적 특성을 띠고 있는 우정은 고정관념과 연령주의를 극복하는 세대 간 관계 회복과 호혜적 공동체를 향해 젊은이들과 중고령자들 서로가 변화되게 한다. 나이 차이를 넘어 생산적 활동과 성장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 간 노력이 우정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게 시도되는 특징이 있다. 우정은 친구 간에 덕을 기르고 닦음으로 서로의 선한 성품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인격과 시각을 형성시킨다.⁹²⁾ 이에 따라 공간의 고령화에 대한 저항은 공적 공간이 경제적 관점에 따른 “사물의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바이오필리아(효과)에 일치하여 “인성 발달”과 “인간 성장”을 지향하고 도모하는 것이다.⁹³⁾ 그 실천 방안

89) Stanley Hauerwas, *Growing Old in Christ*, 이라이프아카데미 역,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에 관하여』(서울: 두란노, 2021), 273.

90) 위의 책, 280-281.

91) 위의 책, 280.

92) 위의 책, 278

93) Fromm,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55; Craig Van Gelder & Dwight J.

의 하나로서 다양한 나이대에 걸친 우정은 ‘생활연령’과 ‘사회적 연령’의 틀에서 벗어나 차별적인 나이의 간극을 좁히거나 연령주의적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 나이가 아닌 존재와 활동과 성장 중심으로 나이듦과 중고령자들을 바라봄으로써 공간의 고령화 저지와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에 그들의 참여와 기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국가 경쟁력과 우리 사회의 생산성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는 예측은 (초)고령사회에 동반되는 중고령인구의 배제나 평가절하가 ‘공간의 고령화’를 초래해 공동의 삶에서 그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가시적, 비가시적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연령주의적 차별과 배제로 모두에게 열린 공동의 삶에서 연령에 따른 공간 별 배치와 공적 공간에서 중고령층의 기피는 공간은 한정되고 제한적이기에 확장되거나 변화되기 어렵다는 경직된 관점에 따른다. 공간의 고령화에서 드러나는 은퇴와 나이듦에 의한 삶의 축소와 활동의 만류는 중고령자에게 씌워진 편견과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맞서 전 생애에 걸쳐 성장 가능한 인간 이해와 확장 가능한 공간 인식을 근거로 저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저지는 공간의 고령화를 용인하는 3단계 삶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4, 5단계 삶으로의 이행이 일어나며 연령 통합적으로 나이가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 “연령유연성”과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활발히 교류하는 “연령다양성”⁹⁴⁾이 실천되는 것을 뜻한다.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서울: CLC, 2015), 220-221.

94) 정경희 외 4인, “연령통합 지표개발과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12. 31), 20, 25, 28; Dale Dannefer, “Age, the Life Course,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Prospects for Theory,”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7th Edition,

이를 위한 조건으로 나이듦의 윤리적 이해는 나이와 나이듦을 학업-직장-은퇴라는 전통적인 생애주기나 생활연령에 의존한 편견에 도전하고 수동적이고 참여적이지 않은 노화 대신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나이듦을 지향하도록 이끈다. 수명연장 시대는 생활연령 관점의 나이 이해에 따른 고정관념에 구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이불가치론에 의거해 나이를 구속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4, 5단계의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점에서 윤리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윤리적 나이듦은 ‘사회적 연령’과 ‘수치결정론’에 종속되어 중고령기의 활동과 의식이 생물학적 노화나 생활연령에 얽매인 채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으로 정체하는 대신, 연령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참여적이고 의미 있는 제2인생을 추구함으로써 공간의 고령화에 저항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령주의와 나이듦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세대 간 관계 회복과 호혜적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나이대의 우정이 젊은이들과 중고령자들 서로가 연령통합적으로 변화되는 데에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정은 나이 차별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의 선한 성품을 독려해 상대방에게 윤리적 나이듦에 관한 인격과 시각을 형성시킬 수 있다. 바이오필리아(효과)는 이상의 사유와 생활방식을 근거 지우며 실천 전략을 특징짓는 지배 원리와 그에 따른 상황을 예시하였다. 따라서 공간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저항과 회복은 모든 이들의 삶을 고양하고 성장을 복돋우는 바이오필리아(효과)에 일치하여 ‘생활연령’과 ‘사회적 연령’의 틀을 거부하고 연령주의적 고정관념에 구속됨 없이 나이듦과 중고령자들을 바라봄으로써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에 그들의 참여와 기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 대한민국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12).
- 박선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 302 (2017), 18-30.
- 안용성. “하이테크의 ‘세계’에 비추어 보는 르페브러의 ‘사회적 공간’: 성서 서사 공간 해석을 위한 이론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2014), 5-32.
- _____. 『현상학과 서사 공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 「보건복지포럼」 제254호 (2017), 50-66.
- 이상훈. “중고령자들의 시간 이해가 ‘활동적 노화’ (Active Aging)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사회윤리」 53(2022), 381- 409.
- 정경희 외 4인. “연령통합 지표개발과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12. 31).
- Applewhite, Ashton. *This Chair Rocks*. 이은진 역.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서울: 시공사, 2016.
- Arvay, Clemens. *Biophilia in der Stadt*. 박병화 역. 『필(必)환경도시』. 서울: 올리시즈, 2020.
- Binswanger, L. *Grundformen und Erkenntnis Menschlichen Daseins*. Zürich: Max Niehans, 1942.
- Bollnow, Otto Fiedrich. *Mensch und Raum*.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서울: 에코리브르, 2011.
- Dannefer, Dale. “Age, the Life Course,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Prospects for Theory.”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7th Edition, ed. Robert H. Binstock and Linda K. George. Academic Press, 2011.
- Denworth, Lydia. *Friendship*. 안기순 역. 『우정의 과학』. 서울: 흐름출판, 2021.
- Dunbar, Robin. *Friends*. 안진이 역. 『프렌즈』. 서울: 어크로스, 2022.
- Fromm, Erich.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New York: Holt,

- Rinehart & Winston, 1973.
- _____. *The Heart to Man*, 황문수 역. 『인간의 마음』. 서울: 문예출판사, 1977.
- _____. *Lieben wir das Leben noch?* 장혜경 역.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경기, 파주: 김영사, 2022.
- _____. *Man for Himself*. 강주현 역. 『자기를 위한 인간』. 서울: 나무생각, 2018.
- Gratton Lynda, Andrew Scott, *The 100 Year Life*. 안세민 역. 『100세 인생』. 서울: 클, 2017.
- _____. *The New Long Life*. 김원일 역. 『뉴 롱 라이프』. 서울: 클, 2021.
- Hauerwas, Stanley et al. *Growing Old in Christ*. 이라이프아카데미 역.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듦에 관하여』. 서울: 두란노, 2021.
- Kellert, Stephen R. *Kinship to Mastery: Biophilia in Human Evolution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Island Press, 1997.
- Lehmann, Paul.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 Levy, B. R., et al. "Longevity Increased by Posi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3, No. 2, (2002), 261-270.
- Levy, Becca, *Breaking the Age Code*. 김효정 역. 『나이가 든다는 착각』. 서울: 한빛비즈, 2023.
- Rilke, R. M. *Briefe aus den Jahren 1907-1939*.
- Robson, David. *The Expectation Effect*. 이한나 역. 『기대의 발견』. 서울: 까치, 2023.
- Van Gelder Craig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서울: CLC, 2015.
- Van Quyen, Michel Le. *Cerveau et Nature*. 김수영 역.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서울: 프린트페이지, 2022.
- Volf, Miroslav. *A Public Faith*, 김명운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 _____.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 Williams, Florence. *The Nature Fix*. 문희경 역. 『자연이 마음을 살린다』. 서울: 더퀘스트, 2018.

논문투고일: 2023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17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초)고령사회에 동반되는 중고령인구의 배제나 평가절하가 초래하는 ‘공간의 고령화’를 저지하는 데에 ‘바이오필리아(효과)’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간의 고령화를 유발하거나 저지하는 근거로 인식되는 공간의 제한성과 확장성 및 나이와 가변성과 생활연령 등에 관한 조명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바이오필리아 (효과)가 수명연장 시대 공간의 고령화를 완화하고 중고령자들이 추구하는 생산적이며 활동적인 나이들을 어떻게 추동하는지 고찰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연령 집단에 걸쳐 있는 인간관계가 나이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해 참여적이고 의미 있는 나이들을 촉진하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이러한 규명은 공간의 고령화의 원인으로 분석되는 생활연령 관점의 ‘나이들’에 맞서고 바이오필리아 (효과)가 지향하고 지원하는 윤리적 ‘나이들’을 요구하기에 이에 관해 고찰하였다. 그럼으로써 이 연구는 ‘바이오필리아 (효과)’가 중고령자들의 윤리적 ‘나이들’을 진작시킬 때 공간의 고령화 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제어: 바이오필리아, 공간, 노화, 생산가능인구, 생활연령, 연령차별
